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다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2024.10.27 (575호)

2. 아침묵상

수요성경공부가 시작되는 동안은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만 아침묵상이 업로드될

예정이며 목요일 아침에는 수요성경공부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3. 종교개혁주일&창립주일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자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특별한 행사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로 화답하겠습니다.

4. 교우동정

10월, 11월 중 한국 방문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안전한 여정을 위해 중보하며 서로 안부 물으시면 좋겠습니다.

비례판정지 1:6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지난 주 (10/20) 현금 통계

선교구제 현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현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428.93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찬양과경배 Songs of Praise

기도 Prayer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성경봉독 Scripture Rec 누가복음 9장 28-48절

말씀선포 Sermon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찬양 Praise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현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현금함에 넣어주세요.

주일대표기도

11월 3일

Chris Choi

11월 10일

최은숙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본당)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

아침묵상

(화,수,목,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지난주 설교 요약

Sermon Summary

인간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지식이라면 예수님은 이 땅에 훌륭한 교육자로 오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건강이라면 예수님은 이 땅에 훌륭한 명의로 오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재벌로 오셔서 가난한 자들이 아무도 없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선언에서 예외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믿지 않는 자들도 인정하는 바랍니다. 세상 속담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인간을 믿지 말라는 속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답이 없다는 것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공감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답을 얻었다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야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시선이 옮겨 가야 합니다.

그 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는 결코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배를 불려 주시기 위함도 아닙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 이후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평가하느냐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저하게 오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시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참된 믿음의 고백이요. 이 고백 또한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그 뒤에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유명한 구절은 예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이 유명한 말씀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 이후에 선포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세리가 드리는 기도의 차이를 설명하시면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알려 주신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날마다 성전에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십일조를 드리고 저 성전 밖에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자랑하듯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당신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전하며 무엇을 신앙생활이라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나는 또 누구입니까?